

정치 : 국방

계엄으로 떨어진 별 19개...장성 9명 공백, 기약 없는 장기화 수순

중앙일보 입력 2025.01.01 15:44

이근평 기자 이유정 기자

구독

‘12·3 비상계엄’ 이후 군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내란 가담 혐의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장성들의 직무가 줄줄이 정지된 데 이어 일부에 대해선 보직해임 절차가 시작됐다. 대비 태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속 인사가 시급하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국군 통수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당분간 직무대리 등 댄질식 군 지휘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왼쪽)과 광종군 특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있다. 뉴스1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계엄 여파로 현재까지 직무정지된 장성은 진급 예정자를 포함해 모두 9명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광종군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구삼희 2기갑여단장·방정환 전작권 전환 TF장(준장), 정성우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 예정) 등이다. 계급장 별의 숫자로 따지면 19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이진우 사령관의 경우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로 혐의명이 명확해진 후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이 곧 이뤄진다”고 말했다. 박안수 총장 등도 이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기소가 완료되면 같은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ADVERTISEMENT

문제는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직무정지가 이뤄진 이들의 보직은 대북 대비태세와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핵심 직책에 해당한다. “지명된 직무대리자들이 현재 해당 부대에 위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비태세나 작전 임무태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입장이지만, 대리 체제가 길어질수록 한계가 드러날 것이란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군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을 틈 타 북한이 서해상 등 민감한 지역에서 떠보기식 도발에 나섰을 때 일사불란한 지휘 계통에 의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미다. 계엄에 군이 대거 동원되면서 군 내부의 동요도 여전하다고 한다. 야전 한 간부는 “계엄 사태 이후 경계 태세를 위한 부대 이동에서조차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계엄 책임에서 자유로운 지휘관 위주로 대비태세 정상화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광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뉴스1, 연합뉴스

그럼에도 후속 인사는 당분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안이 연이어 가결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 행사에 해당하는 장성 인사를 실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 대행이 후속 인사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마저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무리한 인사가 군 내 분란의 요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 기간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팩플



트럼프·탄핵뿐만이 아니다 “전멸위기” IT업계 4가지 악몽



LLM도 힘든데 SLM 또 뭐야? AI 문해력 테스트 10문 10답



“왜 A 안 주냐” 항의 때 내민다 챗GPT가 도와준 인사팀 명분

1/10

- #장기화
- #계엄
- #지휘부 공백
- #여인형 방첩사령관
- #장기화 국면

0

19

uno_****

4시간 전

그 자리에 별들이 없는게 차라리 낫다.....그런 마인드와 실력의 지휘관이면 장병들 당일로 몰살된다.

2 1

howa****

6시간 전

국군 통수권자를 보필하라고 별 달아 줬더니....하라는 짓은 커녕 질질 빠기나 하는 놈들을 국토 방위의 전면에 내세운다?...야, 야,...예비역 병장이 훨 낫다....

3 3

howa****

6시간 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나라의 안팎이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 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대통령 윤석열

3 2

44개 댓글 전체 보기

함께 본 기사

尹영장 적시된 '이례적 문구'...경호처 '체포 거부' 논리 깨졌다

2025.01.01 15:26

집토끼 모으는 홍준표, 고심 깊은 오세훈...차기 대권 與잠룡 꿈틀

2025.01.01 17:36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휴일 밤·새벽 가능성...극도 보안 유지

2025.01.01 12:21

당신을 위한 추천기사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Innovation Lab

푸바오와 무덤이 전하는 편지

ILab Original

The JoongAng Plus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라이프

피플

스페셜

로그인

전체 서비스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청소년 보호정책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우) 03909 전화 : 02-751-5114 등록번호 : 서울 아
01013 등록일자 : 2009.11.2 발행인 : 박장희 편집인 : 고현곤

사업자명 : 중앙일보(주) 사업자등록번호 : 110-81-00999 대표자명 : 박장희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